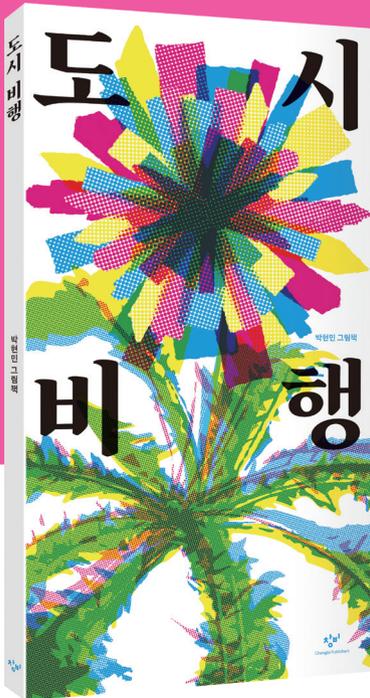


"겁내지 않고 똑바로 볼 거야. 나에게 오는 모든 일을."

작은 존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넓은 세계



도시 비행

박현민 그림책 | 창비 2023

2022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 『도시 비행』의 주인공은 길에서 흔히 보는 민들레다. 민들레의 도시 생활은 외롭고 위태롭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도시이지만, 민들레에게는 매일의 역경을 살아 내야 하는 곳이다. 자전거 바퀴에 밟힐 뻔하고, 애벌레에게 몸이 갇혀 먹힐 위기가 수없이 일어난다. 어린이의 도시 생활도 민들레의 삶처럼 척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린이를 자주 만나지만, 정작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지 잘 모른다. 마치 민들레의 눈에 비친 도시 풍경처럼 어른에게는 익숙한 것들이 어린이 눈에는 어색하고 두렵지 않을까. 길에서 친숙하게 보는 민들레가 책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까닭은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민들레의 감정을 만나기 때문이다. 『도시 비행』은 독자의 시선을 도시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 민들레와 눈높이를 맞춘다. 민들레와 나란히 눈 맞춘 어린이는 역경을 거름 삼아 도시 높이 날아오르는 민들레를 통해 '도시 비행'을 경험하면서 자기 고양감을 맛볼 것이다.



주인공 예상하기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같은 세상이라도 누가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표지와 제목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의 눈으로 본 세상

출처 KBS 뉴스 곤충의 눈으로 본 '색다른 세상' (2016.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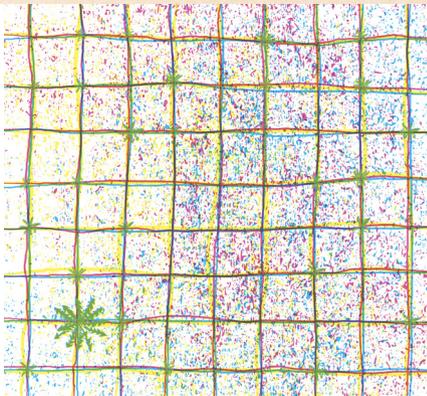


파리의 눈으로 본 세상

출처 유튜브 As/Is 'How Animals See The World' (2012.10.09.)

- ◆ 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
- ◆ 누구의 시선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 보세요.

앞의 면지에 등장하는 민들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민들레예요.
다음 장면은 누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시선 방향 : 위에서 아래로 (↓)

보고 있는 존재 : 사람



시선 방향 : 에서 로 ()

보고 있는 존재 :

이 책은 바닥에 누워서 읽으면 더 재미있답니다!



민들레가 되어 감정 표현하기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보도블록 틈새에서 살아가는 민들레는 어떤 마음일까요?
민들레의 상황을 떠올리며 민들레의 감정에 어울리는 장면을 찾아보고,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함께 적어 봅시다.

민들레의 감정	민들레의 감정에 어울리는 장면과 내 감정
당황하다	<p>◆ 장면:</p> <p>◆ 내 감정:</p>
외롭다	<p>◆ 장면:</p> <p>◆ 내 감정:</p>
설레다	<p>◆ 장면:</p> <p>◆ 내 감정:</p>

작은 민들레가 바라보는 세상을 떠올리며 민들레가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한여름 햇볕도, 휘몰아치는 비바람도 이겨 낸
민들레의 굳은 다짐을 글씨로 반듯하게 써 보아요.

“	겁	내	지	않	고	똑	바로	볼	거
야	.	나	에	게	오	는	모	든	일
									을
									.”



우리 주변 돌아보기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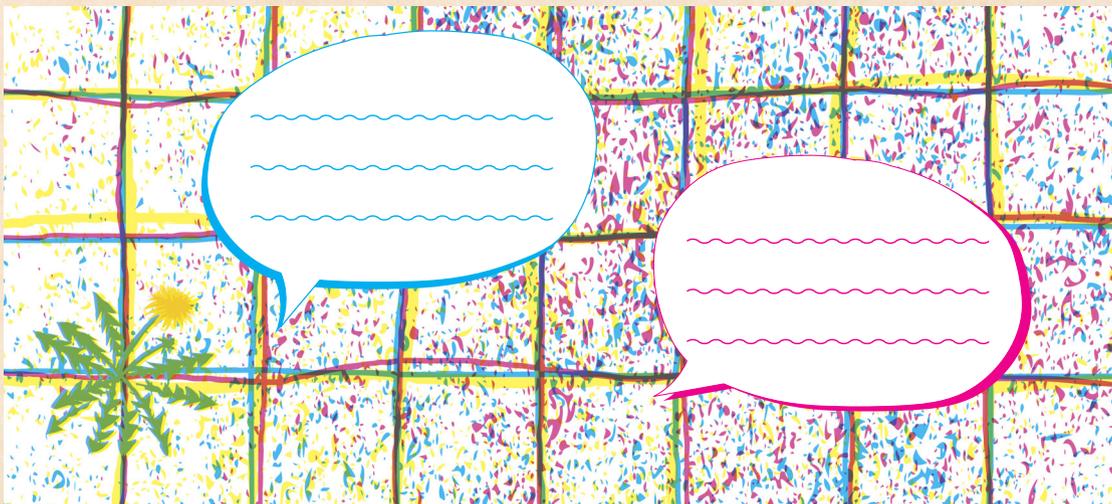
번

이름

민들레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르기까지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적어 봅시다.

누가	어떻게
강아지	예시: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자라는 땅의 거름이 되었다.
애벌레	
빛물	
어린이	

새로 피어나는 민들레에게도 응원의 말을 전해 줍시다.
민들레처럼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반 친구들의 꿈도 함께 응원한다면 더 좋겠지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고난을 견딘 민들레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일을 겁내지 않게 된 민들레는 다음 해에도 더 높이 날아오르겠지요?